

새로 발견한 벽암 각성의 『선원도중결의(禪源圖中決疑)』 간행 배경과 그 내용

서수정

동국대 불교학술원

crystal0721@hanmail.net

I. 머리말

II. 서지와 체재

III. 편찬과 간행

IV. 원문과 주요 내용

V. 맺음말

요약문

조선중기 벽암 각성(碧巖覺性, 1575-1660)이 찬술한 것으로 알려진 『선원도중결의(禪源圖中決疑)』는 그의 비문과 행장 등에 서명이 소개되어 있을 뿐 지금까지 실물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필자는 부산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이 책의 목판본이 소장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원문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1648년(인조 26)년 합천 가야산 해인사에서 판각된 것으로, 「선원도중결의」와 「참상선지설(參詳禪旨說)」 그리고 「서도중결의후(書圖中決疑後)」 3편의 글이 합간(合刊)되어 있다. 「선원도중결의」는 규봉 종밀의 저술인 『선원제전집도서』에 나오는 내용 중 도식(圖式)에서 드러난 의문점을 벽암 각성이 여러 선객들의 물음에 답하는 13가지의 문답형식으로 풀어낸 글이다. 「참상선지설」은 1636년 11월 1일 부휴 선수(浮休善修, 1543-1615)의 기일날 화엄사 벽암당에 모인 여러 사형들이 지눌의 『법집별행록절요병

입사기』에 나오는 ‘방하교의(放下教義) 참상선지(參商禪旨)’의 뜻을 묻자, 벽암 각성이 진각 혜심의 『선문염송』에 나오는 제1 고칙(古則)을 인용하여 그 뜻을 밝힌 글이다. 이 두 글은 벽암 각성의 제자이자 당대 글씨로 유명했던 설봉 희안(雪峯希安)이 행서체로 썼다. 책 말미에 실린 「서도중결의후」는 앞의 두 저술에 대한 발문으로, 선조(宣祖)의 부마이자 당대 문장과 글씨로 명성을 떨쳤던 동회(東淮) 신익성(申翊聖, 1588-1644)이 1642년 경기도 용문산 백운루에서 직접 쓴 글이다.

새로 발견된 벽암 각성의 『선원도중결의(禪源圖中決疑)』는 18세기 강학(講學) 사기(私記)의 효시(嚆矢)로 그 의미가 있으며, 그의 교학과 사상이 새롭게 평가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선원도중결의, 참상선지설, 서도중결의후, 벽암 각성, 신익성, 설봉 희안

I. 머리말

벽암 각성(碧巖覺性, 1575-1660)은 임진왜란(1592)과 정유재란(1597)에 이어 다시 정묘호란(1627)과 병자호란(1636)이 발발하여 국가적으로 병란이 잇달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승려였다. 그는 광해군대에 판선교도총섭(判禪敎都摠攝)을, 인조대에 남한산성 팔도도총섭의 승직에 이어 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報恩闡敎圓照國一都大禪師)의 호까지 하사받았다. 국가로부터 최고의 승직과 신임을 받았던 벽암 각성은 그 명성에만 머물지 않고 지리산 쌍계사, 구례 화엄사, 순천 송광사, 완주 송광사 등 호서와 호남의 주요 사찰을 대대적으로 재건하였다. 또한 교학적인 면에서도 부휴 선수(浮休善修, 1543-1615) 문하에서 30여 년을 수학하며 부휴계의 적전(嫡傳)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지금까지 벽암 각성에 대한 연구는 부휴계 중심의 문파 활동,¹⁾ 남한산성 축

1) 김용태, 「‘浮休系’의 계파인식과 普照遺風」, 『普照思想』 제25집(보조사상연구원, 2006), pp.315-359; 김용태, 「조선후기 華嚴寺의 역사와 浮休系 전통」, 『지방사와 지방문화』 12권1호(역사문화학회,

성과 완주 송광사 중창,²⁾ 그리고 불상·불화 조성³⁾과 용장사 불서 간행⁴⁾ 등 특정 불사(佛事)와 관련된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벽암 각성의 비명과 행장을 중심으로 그의 행적이 체계적으로 조명되었고,⁵⁾ 불교미술사 측면에서 그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되면서⁶⁾ 그의 활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벽암 각성의 교학과 사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었다. 그 주된 이유는 벽암 각성의 저술이 상례집인 『석문상의초(釋門喪儀抄)』를 제외하고는 현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몇 해 전 규봉 종필(780-841)의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序)』(이하 『도서』)에 수록된 도식(圖式)의 내용이 중국에서 간행된 판본과 한국에서 간행된 판본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고 유통본의 계통을 연구한 바 있다.⁷⁾ 18세기 들어 조선에서 간행되기

2009), pp.381-409 등.

- 2) 전영준, 「碧巖 覺性의 남한산성 축성과 사원 중창」, 『한국인물사연구』 제12집(한국인물사연구회, 2009), pp.231-258; 김용태, 「조선후기 남한산성의 조영과 승군의 활용」, 『韓國思想과 文化』 제78집(한국사상문화학회, 2015); 최연식, 「완주 송광사의 창건 배경 및 조선후기 불교 문파와의 관계」, 『보조사상』 제47집(보조사상연구원, 2017), pp.133-167 등.
- 3) 문명대, 「벽암각성(碧巖覺性)의 조형 활동과 설악산 신흥사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불상과 그 복장품의 연구」, 『강좌미술사』 45(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5), pp.13-33; 김미경, 「조선헌해군대의 불사(佛事) 연구-안동 仙刹寺 목조석가불좌상 조성발원문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제67집(동아대 학교부설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17), pp.79-118 등.
- 4) 송일기·박민희, 「智異山 所在 寺刹의 朝鮮時代 開板佛書 研究」, 『서지학연구』 제46집(한국서지학회, 2010), pp.382-386; 송일기, 「泰仁 龍藏寺 開板佛事 研究」, 『서지학연구』 제71집(한국서지학회, 2017), pp.85-101; 김지완·남권희, 「17세기 태인 용장사 간행 불서의 서지적 분석」, 『서지학연구』 제71집(한국서지학회, 2017), pp.253-296 등.
- 5) 손성필, 「조선후기 고승 傳記類 자료의 성격: 碧巖 覺性의 碑銘과 行狀을 중심으로」, 『佛智光照: 청계정인스님정년기념논총』(논총간행위원회, 2017), pp.686-712; 손성필, 「17세기 浮休系 僧徒의 碑建립과 門派 正統성의 형성」, 『조선시대사학보』 83(조선시대사학회, 2017), pp.129-171.
- 6) 2018년 3월 23일에 (사)한국미술사연구소·한국불교미술사학회에서 『조선 후반기 최고 불교미술 조성자 벽암 각성과 불교미술문화재 조성』이라는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불상 및 불화를 중심으로 문명대, 「벽암 각성 조형 활동과 불상 조성」; 김정희, 「벽암 각성의 불화 조성-1653년작 화엄사 영산회괘불도」; 박도화, 「벽암 각성의 불경 조성-송광사간 대방광불화엄경소 변상도」가 발표되었고, 사찰 중창을 중심으로 이강근, 「벽암 각성의 재건 활동과 화엄사 중창」; 유근자, 「벽암 각성의 활약과 완주 송광사」; 고영섭, 「벽암 각성의 생애와 사상-「화엄사 벽암당 각성대사 비문」을 중심으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7) 서수정, 「『禪源諸詮集都序』의 간행과 유통판본 고찰-中國과 韓國 유통본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59(한국불교학회, 2011), pp.197-235.

시작한 4편의 『도서』 사기(私記)에 앞서 편찬된 벽암 각성의 『선원도중결의(禪源圖中決疑)』가 그 효시(嚆矢)가 될 뿐만 아니라 도식의 의문을 해결해주는 단서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⁸⁾ 하지만 당시 현존하는 필사본이나 간행본이 전해지지 않아 아쉬워 한 바 있었다. 그러던 차에 부산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고문헌의 목록을 확인하던 중 표제에 ‘선원도중결의’라고 적힌 목판본 1책을 발견할 수 있었다.⁹⁾ 필자는 2017년 4월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직접 방문하여 실물을 조사하였다.¹⁰⁾

지금까지 기록으로만 확인되었던 『선원도중결의』가 발견됨으로써 그 내용뿐만 아니라 벽암 각성의 교학과 사상에 대해서도 새롭게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선원도중결의』의 체재와 편찬·간행 배경을 고찰하고, 『선원도중결의』에 수록된 원문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더불어 저술의 기반이 되었던 벽암 각성의 불서 간행 활동과 『선원도중결의』가 18세기 『도서』 사기에 미친 영향 등은 추후 논문에서 이어가고자 한다.

II. 서지와 체재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선원도중결의』에는 「선원도중결의(禪源圖中決疑)」, 「참상선지설(參詳禪旨說)」, 「서도중결의후(書圖中決疑後)」의 세 편의

8) 앞의 논문, pp.218-227.

9) 현재 부산 범어사 성보박물관에는 670여 종 1,900여 책의 고문헌이 소장되어 있다. 이 중 『三國遺事』(卷4-5), 『注梵網經』, 『佛祖三經』, 『金藏要集經』의 4종 4책이 보물로, 『太顛和尚注心經』 등 13종 21책이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 외에 『蓮經別讀』(1524년 雙龍寺開板, 合本: 華嚴釋題), 『釋迦佛十地修行記』(1660년, 德周寺開板), 『佛像腹藏所入物目』(1769년 鳳停寺開板) 등의 희귀본도 다수 확인된다. 『한국의 사찰문화재: 부산·울산·경남 II』 ①(서울: 문화재청·불교문화재단연구소, 2009), pp.109-193; 앞의 책, 자료집, pp.140-17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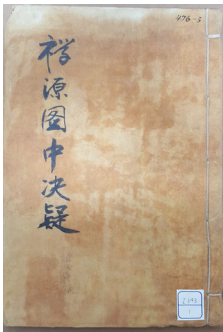
이에 앞서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조사·발표한 정수미, 「釜山 寺刹 文獻의 現況과 保存(梵魚寺 現藏 典籍·木板을 중심으로)」, 『文化傳統論集』 제11집(부산: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pp.71-101에서도 범어사 소장 전적 180여 종(불가전적 162종, 비불가전적 21종)을 소개하였으나, 『선원도중결의』는 전적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0) 자료 열람을 제공해 주신 이정은 범어사 학예연구실장님과 조사에 도움을 주신 순천대 이종수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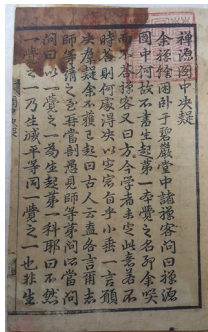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 찬술자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현전하는 행장이나 비석의 기록을 통해 벽암 각성의 저술임을 알 수 있다.

조선중기 문인이자 영의정을 지낸 이경석(李景奭, 1595-1671)이 짓고 1663년(현종 4) 8월에 건립된 전남 구례 화엄사 비문에는 “『선원집도중결의』 1권(卷), 「간화결의(看話決疑)」 1편(篇), 『석문상의초(釋門喪儀抄)』 1권(卷)”이 벽암의 저술이라고 기록되어 있다.¹¹⁾ 또한 당대 최고의 시인이자 문장가인 정두경(鄭斗卿, 1597- 1673)이 짓고 화엄사비가 건립된 지 8개월 뒤인 1664년(현종 5) 4월에 건립된 충북 보은 법주사 비문에는 “「도중결의」와 「참상선지(參商禪旨)」 그리고 동양도위 신익성이 쓴 서문이 세간에 알려져 있다”¹²⁾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범어사에 발견된 『선원도중결의』는 법주사 비문에 기록된 내용을 정확히 입증해 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책의 서지사항과 체재를 살펴보면, 표지는 새로 개장한 것으로 앞표지에 ‘禪源圖中決疑’가 표제로 적혀 있다(그림 1). 책의 형태사항은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 21.0×13.3cm, 무계(無界)¹³⁾, 반엽 9행17자, 상하내향2엽화문어미, 책 크기 24.6×17.1cm이며, 전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선원도중결의』 앞표지



〈그림 2〉 『선원도중결의』 권수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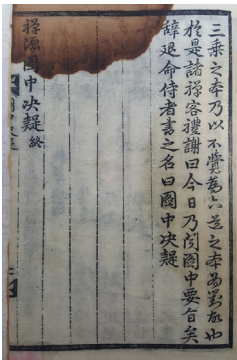


〈그림 3〉 『선원도중결의』 뒤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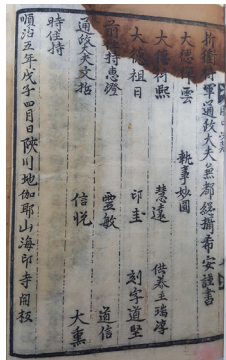
- 11) 「求禮華嚴寺碧巖堂覺性大師碑文」(『韓國高僧碑文總集 朝鮮朝·近現代』, pp.180-184), “其所著 有禪源集圖中決疑一卷 看話決疑一篇 釋門喪儀抄一卷.” 이 중 『석문상의초』만이 현재까지 알려져 있었다.
- 12) 「報恩法住寺碧巖堂覺性大師碑文」(앞의 책, pp.174-177), “所製 有圖中決疑 參商禪旨等語 東陽都尉 申公翊聖序之行于世. 處能大師 師之傳鉢弟子也.”
- 13) 권말과 간기면은 有界로 되어 있다.

앞의 7장은 「선원도중결의」이며, 권미제(卷尾題)에 이어서 간행질과 간기가 새겨져 있다. 뒤이어 「참상선지설」 2장과 「서도중결의후」 3장이 이어진다. 내용별로 판심제(版心題)에 ‘도중결의(圖中決疑)’, ‘선지설(禪旨說)’, ‘후(後)’가 각각 새겨져 있다.

제7장 간기면(그림5)에 새겨진 내용에 의하면, 「선원도중결의」는 절충장군 통정대부이자 도총섭이었던 희안(希安)이 행서(行書)체로 쓴 것이며, 1648년(인조 26) 4월 합천 가야산 해인사에서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덕(大德)인 선운, 연희, 조일을 비롯하여 통정대부 문철과 전(前)주지인 혜징이 기록되어 있다. 반면 현주지[時住持]는 범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간행을 직접 주도했던 집사(執事)는 묘원, 혜원, 인규, 영민, 신열의 5명이, 공양주는 서순, 그리고 판각을 맡은 각수는 도견, 도신, 대훈 3명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의 간행에 15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선원도중결의」 권미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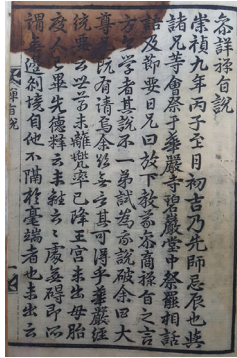
〈그림 5〉 『선원도중결의』 간기면

折衝將軍通政大夫兼都摠攝
 希安謹書
 大德禪雲
 大德衍熙
 大德祖日
 前住持惠澄
 通政大夫文哲
 時住持
 執事妙圓 慧遠 印圭
 靈敏 信悅
 供養主瑞淳
 刻字道堅 道信 大熏
 順治五年戊子(1648)四月日
 陝川地伽耶山海印寺開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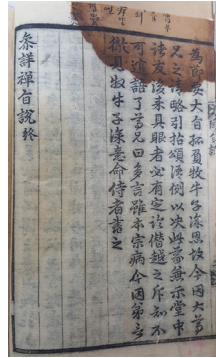
간기면 다음에 나오는 「참상선지설」은 2장 분량의 비교적 짧은 글이다.¹⁴⁾

14) <화엄사비문>에 기록된 「간화결의 1편(篇)」이 「참상선지설」을 별칭(別稱)한 것으로 생각된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편,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서울: 동국대출판부, 1976), p.185에서도 ‘참상선지’가 ‘간화결의’를 지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권수제에 ‘參詳’과는 달리 원문의 본문에서는 주로 ‘參商’으로 기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문에 나오는 글자대로 표기하고자 한다.

「참상선지설」이 앞의 「선원도중결의」와 동일한 글씨체와 판형식인 점으로 보아, 두 저술 모두 1648년 해인사에서 합간(合刊)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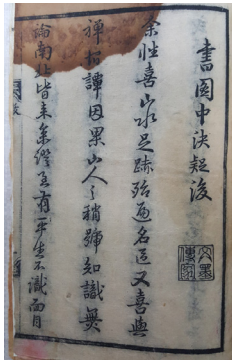
〈그림 6〉 「참상선지설」 권수제면



〈그림 7〉 「참상선지설」 권미제면

「서도중결의후」는 앞의 두 저술에 대한 발문에 해당하는 글로, 그 글 끝에 “壬午中秋東淮府叟書于白雲樓中”과 ‘東淮’, ‘東淮之印’, ‘申翊聖章’, ‘君爽’ 4과의 동회 신익성(1588-1644)의 인장이 함께 새겨져 있다(그림9). 앞의 글씨체와는 다른 행서체의 이 발문은 당대 글과 글씨로 명망이 높았던 신익성이 1642년 8월 백운루(白雲樓)¹⁵⁾에서 직접 쓴 글이다. 이 발문은 『선원도중결의』가 해인사에서 간행되기 6년 전에 쓴 글임을 알 수 있다.

15) 최근 이태호 교수에 의해 발굴된 신익성의 서화첩인 『백운루첩』에는 1639년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운루의 풍경을 그린 산수화 한 점과 신익성의 시에 여러 사람이 화답한 차운시들이 실려 있다. 마지막 차운시를 쓴 이민구(李敏求, 1589-1670)의 글과 그의 문집인 『동주집(東州集)』의 「백운루기」에 따르면, ‘동회옹이 1637년 병자호란이 끝나자 귀휴를 청하여 선산인 광릉(경기도 광주)에 가서 정원과 연못을 만들었고, 두 해 뒤 벼슬을 그만두고 전원으로 돌아가 작은 누정 하나를 올렸는데, 백운봉을 마주한다는 뜻으로 백운루를 지었다’고 한다. 신익성의 아들 신최도 “아버지는 귀전한 뒤에 운길산 아래 회수 강가에 작은 누정을 지었으니 바로 용문산 백운봉(현재 경기도 양평군) 서쪽이다. 편액하기를 ‘백운’이라 하였다. 기천공(이광)이 편액을 쓰고, 동주 이공(이민구)이 기문을 지었다”고 말한다. 이태호, 「동회 신익성: 인조 시절의 사생론과 실경화 <백운루도>」, 『옛 화가들은 우리 땅을 어떻게 그렸나』(서울: 마로니에북스, 2015), pp.420-462 참조. 이 발문은 신익성이 귀향 후 경기도 용문산 백운루에서 그해 12월에 척화오신(斥和五臣)으로 지목되어 심양으로 압송되기 4개월 전에 지은 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 「서도중결의후」 권수



〈그림 9〉 「서도중결의후」 권말

이와 동일한 발문이 신익성의 자편 원고인 『낙전당고(樂全堂稿)』 중 『속고(續稿)』 권14에 「서벽암장로도중결의참상선지설후(書碧巖長老圖中決疑參商禪旨說後)」로 전해지고 있다.¹⁶⁾ 또한 최근에 영인(影印)된 조선중기 학자인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의 문집인 『지봉집(芝峯集)』의 「유묵(遺墨)」편에도 편입되어 있다.¹⁷⁾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벽암 각성 생전인 1648년 해인사에서 간행된 『선원도중결의』는 1664년에 정두경이 <법주사비문>에서 “「도중결의」와 「참상

16) 신익성의 문집인 『낙전당집(樂全堂集)』은 그의 자편 원고인 『낙전당고(樂全堂稿)』 가운데 일부를 모아 1654년에 이민구가 산정(刪定)해서 편찬하였다. 이렇게 산정된 글도 곧바로 간행되지 못하고 신익성의 외손자인 김석주(金錫胄, 1634-1684)에 의해 1682년에 한구자(韓構字) 활자본의 『낙전당집』과 1684년에 신익성의 다른 글들을 추가로 편찬한 운각철(雲閣鐵) 활자본의 『낙전당귀전록(樂全堂歸田錄)』으로 간행되었다. 「서도중결의후」의 발문은 활자본으로 간행된 『낙전당집』과 『낙전당귀전록』에는 수록되지 못했다. 『낙전당집』에는 전통적인 서발(序跋)인 ‘跋’과 변별되는 ‘書後’로 시문(詩文)이나 서화(書畫)의 감상을 적은 글이 엮여져 있다. 『낙전당집』의 간행 배경에 대해서는 한국고전종합DB, 『낙전당집』 김은정 해제(2016) 참조.

1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 『芝峯集』(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4); 『芝峯集』 「遺墨(書圖中決疑後)」,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 제66집(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1), p.14. 이 영인 본에는 「서도중결의후」의 마지막 장이 결락되어 있는데, 이 발문을 이수광이 쓴 것으로 간주한 듯하다. 『지봉집』은 이수광의 아들인 이성구(李聖求)와 이민구 형제가 1634년에 의령(宜寧)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것이다. 간행한 해 전인 1633년에 신익성이 『지봉집』의 발문을 쓰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1642년에 신익성이 쓴 「서도중결의후」의 발문이 1648년 해인사에서 목판에 새겨졌으며, 이 목판을 신익성의 문집을 편찬했을 뿐만 아니라 집안 대대로 친분이 두터웠던 이민구의 집안에서 소장하게 되면서 『지봉집』에 편입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선지」 그리고 동양도위 신익성이 쓴 서문이 세간에 알려져 있다”¹⁸⁾고 밝힌 벽암 각성의 저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III. 편찬과 간행

벽암 각성이 활동한 16, 17세기 전반의 불교계는 강화 교육이 체계를 잡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어느 시기보다 사찰에서 불서 간행이 급증했던 시기였다.¹⁹⁾ 벽암 각성은 1600(선조 33)년에 그의 스승인 부휴 선수로부터 강석을 물려받은 후 1603년 지리산 쌍계사 말사인 능인암(能仁庵) 불서 간행에 이어, 1633년부터 1635년까지 순천 송광사와 태인 용장사(龍藏寺)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불서 간행에도 참여하였다.²⁰⁾ 이러한 활동 이후로 벽암 각성이 찬술한 저술들이 편찬, 간행되기 시작했다.

1636년(인조 14) 가을 무렵에 벽암 각성의 『석문상의초』와 『석문가례초(釋門家禮抄)』²¹⁾가 구례 화엄사에서 편찬되었다. 두 책 모두 1636년 화엄사에서 편찬되었지만,²²⁾ 『석문상의초』는 벽암 각성의 전법제자인 백곡 처능(白谷處

18) 앞의 각주 12번 참조. 저술에 대한 기록에 이어 백곡 처능이 벽암 각성의 전법제자임을 밝히고 있다. 벽암 각성의 저술 간행에 백곡 처능의 역할이 주목된다.

19) 최근에 손성필·전효진, 「16·17세기 ‘사집(四集)’ 불서의 판본 계통과 불교계 재편」, 『한국사상사학』 제58집(한국사상사학회, 2018), pp.229-282 논문이 주목된다. 16세기 ‘사집(四集) 불서 강화의 중시’ 경향이 1630년경 청허계의 편양 언기(1581-1644)의 영향력 아래 ‘사집 중심 강화체계의 성립’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20) 능인암에서는 1603년에서 1604년, 1611년에 대략 17종의 불서가 간행되었다. 간행 불서는 이력과 목 중 사집 불서와 보조 지눌의 저술, 의식류 등이었다. 벽암 각성은 『도서』, 『절요』, 『선요』, 『서장』과 계환이 주석한 『묘법연화경요해』, 그리고 지눌의 『원돈성불론』과 『간화결의론』 등을 직접 교정(校正)하였다. 1633년부터 1635년에 순천 송광사 간행 불서는 대질의 『화엄경소주』(전120권)와 『십지경론』(전12권)이었다. 용장사 간행 불서는 사집 불서를 중심으로 주로 능인암 간행 불서를 번각 혹은 복각하였다. 벽암 각성의 불서 간행 활동에 대해서는 추후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21) 17세기 전반 불교 상례집의 편찬 배경에 대해서는 김용태, 「유교사회의 불교의례-17세기 불교 상례집의 五服制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76(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pp.169-196 참조.

22) 『釋門喪儀抄』, 「釋門喪儀抄序」(『韓佛全』8, p.237上), “夫吉禮且輕 凶禮尤重 既含齒戴髮 豈可一槩忘情而絕其禮哉…近得慈覺大師禪院清規 應之大師五杉集 釋氏要覽 讀之 其中最爲龜鑑者 喪禮一儀 甚詳 而但是中國所向之法 不合東方之禮 故抄出其要 分爲上下篇 以寄初學云. 崑大明崇禎丙子(1636)秋日 碧巖長老書于

能, 1617-1680)에 의해 1657년(효종 8) 전라도 낙안 금화산 징광사(澄光寺)에서, 『석문가례초』는 1660년(현종 1)에 간행되었다. 대략 20여 년이 지난 후였다.

백곡 처능이 1657년 칠불암에서 쓴 『석문상의초』 발문과 간기에 의하면, 이 책은 ‘벽암 각성이 옛 찬요집[선원청규, 오삼집, 석씨요람]에서 사람들이 생전에 겪게 되는 대례(大禮)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한 것을 백곡 처능이 필사해서 청계(淸溪) 정(正)대사와 징광사에서 간행했다.’²³⁾고 한다.

『석문상의초』를 징광사에서 간행하게 된 계기는 『영월당대사문집』에서 찾을 수 있다. ‘백곡 처능이 같은 해 봄 영월 청학(詠月淸學, 1570-1654)의 제자인 청계당(淸溪堂) 법정(法正)대사로부터 문집의 서문을 청탁받았으며, 청학의 제자인 법정, 인징(印澄), 명정(明淨)이 징광사에서 간행하였다.’²⁴⁾고 한다. 이 무렵 백곡 처능이 청계 법정과 함께 『석문상의초』를 징광사에서 간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선원도중결의』의 편찬과 간행 시기도 달랐을 것이다. 백곡 처능이 쓴 행장에 벽암 각성의 저술과 편찬 시기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기록이 있다. ‘벽암 각성은 병자호란이 끝나고 지리산으로 돌아갔다. 그는 학인들의 의문과 논쟁으로 인해서 「도중결의」와 「참상선지(參商禪旨)」

嚴巖寺丈室中.”; 『釋門家禮抄』, 『釋門家禮抄序』(『韓佛全』8, p.277中), “夫吉禮且輕 凶禮尤重 既含齒戴髮 豈可一槩忘情而絕其禮哉…近得慈覺大師禪院淸規 應之大師五杉集 釋氏要覽 讀之 其中家禮甚詳 而但是中國所向之法 不合東方之禮 抄出其要 以寄初學云爾. 時大明崇禎丙子(1636)八月中浣 懶庵眞一 謹序.” 이 두 책에 실린 서문이 밀줄 그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본문의 내용도 유사한 점으로 보아, 벽암 각성의 제자인 나암 진일(懶庵眞一)이 편찬했다고 알려진 『석문가례초』의 편자와 간행(順治十七年 庚子(1660)二月日聞慶表珊瑚奉雁) 배경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23) 『釋門家禮抄』(『韓佛全』8, p.243中), “右編 迺碧巖大和尚所編次釋門家禮也. 此非胸臆誕出 而廣引諸古選要而鈔錄實生死間一大禮 而爲人師者 不得不將爲龜鑑焉. 余伏慮其泯而不傳 禮悅之餘 謹拈秃毛隨次而寫與請(請은 ‘淸’의 誤字임)溪正大師 入梓刊行 以永厥傳焉. 嘻 昆玉雖寶 未遇高眼 則不免爲一礫之窮也 唯通人忌器而勿投鼠也. 崑丁酉(1657)春門人白谷禪子處能謹再拜書于七佛菴中云余, 澄光寺開板 施主秩 法正…刻字繼(願은 ‘碩’의 誤字임)行.”

24) 『詠月堂大師文集』, 『詠月堂大師文集序』(『韓佛全』8, p.221中), “…淸溪堂法正大師 携詠月大師詩若文一卷 求其集序. 余觀其集中有惜別詩…時丁酉(1657)孟春(1월)上澣 大覺登階處能走筆謹書”; 앞의 책, p.236中下, “物不自生 假天地以爲生 道不自行 借人師以爲行 弟等 既爲人弟 敢辜師恩先師吟咏 盡是道風 弟不從刊師道幾隳 先發報恩 後募門人 倩工入梓 以示後來. 順治十三年丙申(1656)五月日 淸溪野衲無何子謹誌. 樂安郡金華山澄光寺留刊. 弟子秩 法正 印澄 明淨, 管刊校正 學淳, 淨屠執事 懷一 禪戒, 鍊板 性憲, 刻字 戒雄 頌行 海玉 德元.” 각수에 ‘석행’이 확인된다.

등의 글을 지었다. 1640년(인조 18) 봄에 쌍계사로 거처를 옮겨 재건하기도 하고 새로이 만들기도 했다.²⁵⁾고 한다.

다음 장의 주요 내용에서 언급하겠지만, 「참상선지설」은 1636년 부휴 선수의 기일인 11월 1일 화엄사에서 벽암 각성과 그의 사형이 나눈 문답의 글이다. 이러한 문답이 있는 후 한 달 뒤인 12월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벽암 각성은 의승 3천 명을 모집하여 항마군(降魔軍)의 승군대장이 되었다. 그는 승군을 이끌고 가는 길에 적이 퇴각하였음을 듣고 지리산 화엄사로 다시 돌아갔다. 그 뒤 벽암 각성은 쌍계사로 거처를 옮겨 그곳에서 중창 불사에 힘썼다.²⁶⁾ 따라서 『선원도중결의』는 1636년 11월 이후부터 벽암 각성이 쌍계사로 거처를 옮긴 1640년 사이에 화엄사에서 편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원도중결의』의 간행은 1648년 4월에 해인사에서 이루어졌다. 벽암 각성이 쌍계사로 거처를 옮긴 이후인 1640년 무렵 조정에서는 그를 다시 도총섭에 임명하여 전라도 무주 적상산성(赤裳山城)을 수호하게 하려 하였다.²⁷⁾ 그 소식을 들은 완주 송광사 승려들이 관찰사에게 상소하여 벽암 각성을 송광사로 초빙될 수 있도록 청하였다. 완주 송광사는 1622년(광해군 14)에 전주 동북쪽 청량산(淸凉山)에 있던 원암사(圓巖寺)에 화재가 나자 응호(應浩) 등의 원암사 승려들이 고려 보조 지눌이 정해놓은 ‘송광사(松廣寺)의 옛터’라고 주장한 인근에 새로 창건하면서 세워지게 된 사찰이다.²⁸⁾ 1622년에 사찰 개창을 시작해 1640년에 마무리가 되어갈 무렵 벽암 각성을 송광사로 초빙했으며, 1641년 마지막 불사인 대웅전 삼존불 봉안에 벽암 각성과 그 문도들이 시주자로 참여하였다. 당시 벽암 각성은 개창의 본말을 기록할 비석을 송광사에 세우게 했다.

25) 『大覺登階集』, 「賜報恩闍致圓國照一都大禪師行狀」(『韓佛全』 8, p.330下), “兵罷還智異, 因學者疑爭 述圖中決疑 叅商禪旨等語 立論甚當 析理尤的 其所以激揚者蓋夥, 庚辰(1640)春 移住雙溪精舍 增舊制而新之.”

26) 쌍계사 목조석가모니불 약사불 좌상, 관음 대세지 일광 월광보살 입상을 조성할 당시 1639년에 쓴 「造像記」에 벽암 각성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27) 『仁祖實錄』 인조 17년(1639) 10월 8일條; 『仁祖實錄』 인조 18년(1640) 5월 21일條.

28) 완주 송광사 창건 배경에 대해서는 최연식, 「완주 송광사의 창건 배경 및 조선 후기 불교 문파와의 관계」, 『보조사상』 제47집(보조사상연구원, 2017), pp.131-167에서 자세히 밝혀졌다. 완주 송광사 관련 내용은 이 논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그가 직접 글을 지을 사람과 글씨를 쓸 사람을 천거했는데, 비문은 선조의 부마인 신익성이 짓고, 선조의 아들로 해서(楷書)에 능한 의창군 이광(李珖, 1589-1645)²⁹⁾이 쓰도록 했다. 그 때 비문을 청탁하는 심부름을 백곡 처능이 담당하였다.³⁰⁾

백곡 처능(1617-1680)은 12세에 의현(義賢)에게 출가했으나 17, 18세경에 서울로 올라가 신익성을 4년 동안 스승으로 모시며 유가 경전과 제자백가 등을 수학하였다. 그 뒤 지리산에 있는 벽암 각성을 찾아가 그를 평생 스승으로 모셨다. 벽암 각성과 신익성은 광해군 당시부터 친분이 두터웠으니,³¹⁾ 이 두 사람을 스승으로 모신 백곡 처능이 당시 심부름을 도맡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송광사개창비>가 세워지고 불사가 마무리되자, 벽암 각성은 1642년(인조 20)에 가야산 해인사로 거처를 옮겼다. 그 해 6월 조정에서는 벽암 각성을 일본으로 가는 사신으로 파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울로 상경하던 중 노환의 이유로 사신 행차의 사직을 청했고, 백운산(白雲山) 상선암(上仙庵)에 은거하였다.³²⁾ 신익성이 경기도 용문산 백운루에 머물면서 『선원도중결의』의 발문을 쓴 시기도 이 무렵인 1642년 8월이었다.

벽암 각성이 해인사에 머물던 그 해 허응당 보우(1509?-1565)가 찬술한 『수월도량공화불사여환빈주몽중문답(水月道場空花佛事如幻賓主夢中問答)』이 간행되었다.³³⁾ 백곡 처능이 이 책의 발문을 지었다. 발문에 의하면, ‘이 책은 도량

29) 의창군 이광은 1636년 각성이 재건한 화엄사 대웅전 현판과 일주문 편액 등을 쓰기도 했다.

30) <송광사개창비> 비문 본문과 음기 부분에 모두 송정병자 즉 1636년의 연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백곡 처능이 쌓게사로 벽암 각성을 찾아온 해가 1640년임을 감안하면 그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31) 『求禮華嚴寺碧巖堂學性大師碑文』, “光海時獄事興 休師爲妖僧所誣 師偕入京. 光海見兩師奇之 放休還山 留師於奉恩寺 爲判禪教都摠攝. 卿士大夫多與之 東陽尉特相善. 未幾南歸.”

32) 『大覺登階集』, 「賜報恩閣教圓照國一都大禪師行狀」(『韓佛全』 8, p.330下), “明年壬午(1642) 辭歸海印 厥六月朝廷徵師 充日本使价 師乘駟如京 謝病免 詣白雲山 隱居上仙菴”; 『求禮華嚴寺碧巖堂學性大師碑文』, “後命使日本 不敢辭 行到中途 以老病甚 請還山.”

33) 한글 현토체로 된 이 책은 수월도량에서 공화불사를 하는 빈주가 꿈속에서 문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꿈속의 문답을 통해 도량 의식이 거행되는 순서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목판이 해인사 동사간판전에 현전한다. 1721년 화엄사에서 해인사본을 복각했는데, 화엄사에 목판이 현

에서 거행하는 의식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병란 때 화재를 겪으며 인멸의 우려가 있던 차에 반운당(伴雲堂) 지선(智禪)대사가 동지 9명과 함께 해인사에서 중간한 것³⁴⁾이라 하였다. 아홉 명의 동지는 간행질에 새겨진 교정을 맡은 묘원(妙圓)을 비롯하여 각수인 석민(釋敏), 석일(釋日), 신언(信彦), 계안(戒安), 도신(道信), 종식(宗湜), 정은(定崙), 응담(應淡)³⁵⁾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들 중 교정을 맡은 묘원과 각수인 도신은 6년 후인 1648년에 『선원도중결의』 간행에도 참여한 동일 인물일 것으로 짐작된다.³⁶⁾ 『선원도중결의』의 간행을 주도한 5명의 집사(執事)들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묘원은 『수월도량공화불사여환빈주몽중문답』의 교정을 맡을 정도로 해인사에서 학식이 높았던 승려로 생각된다.³⁷⁾ 또한 각수인 도신 이외에 『선원도중결의』의 간행에 참여한 도견과 대훈도 해인사 주석 승려들로 생각된다.

『선원도중결의』 간행에는 해인사 승려 이외에 벽암 각성의 직계 제자들도 확인된다. 1764년(영조 40)에 편찬된 『서역중화해동불조원류(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에 벽암 각성의 제자들이 50여 명 기록되어 있다. 이들 중 동림 혜원, 섭허 인규, 설봉 희안 등이 『선원도중결의』 간행에 참여했던 제자들이다.³⁸⁾

설봉 희안(雪峯希安)은 『선원도중결의』의 글을 행서체로 직접 쓴 이다. 그는

전한다.

- 34) 『水月道場空花佛事如幻賓主夢中問答』(『韓佛全』7, p.599上), “大師之平生所述句偈 無非綺麗而傳於世者多矣. 然此偏於道場儀式 最要而歷傳後世. 噫 兵燹之餘 既爲庶絕之態 伴雲堂智禪大師 恐其將沒不傳 與同志九人等 重刊於海印寺. 通示後人 則可謂大師之彈絃賞音有矣. 大師諱普愚 懶菴其號也. 特壬午(1642)孟秋(7월)上澣 白谷沙彌處能謹跋.”
- 35) 앞의 책, p.599下, “校正 妙圓, 隨喜板施主 沖信, 同願助刻板 釋敬 釋日 信彦 戒安 道信 宗湜 定崙 應淡.”; 張次 第8張 欄外, “戒安功德刊之.”
- 36) 『禪源圖中決疑』, “折衝將軍通政大夫兼都摠攝希安謹書, 大德禪雲 大德行熙 大德祖日 前住持惠澄 通政大夫文哲 時住持, 執事 妙圓 慧遠 印圭 靈敏 信悅, 供養主 瑞淳, 刻字 道堅 道信 大熏. 順治五年戊子(1648)四月日 陝川地伽耶山海印寺開板.”
- 37) <화엄사비문>에도 5명의 집사들이 대부분 확인된다(…妙元…印圭 信悅…靈敏…登階 處能 慧遠…). 다만 비문에 ‘妙元’이 ‘妙圓’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도 있기에 해인사 승려로만 단정 짓기도 어렵다.
- 38) 『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韓佛全』10, p.123下), “浮休下第一世碧峯性法嗣 翠微守初 白谷處能 孤雲挺特 暮雲震言 東林慧遠 碧川正玄 月波印英 無依天然 霽霞清順 幽谷沖問 寒溪玄一 蓮華印旭 懶庵眞一 枕虛律戒 晦隱應俊 虛月勝俊 晦跡性悟 霽霞挺特 含花慧認 伴雲尙旭 東溪敬一 雷音敬演 鬚雲天弘 彌虛印圭 雙山印行 雪峯希安 靈源曇照 清潭慧輝 松峯三愚 金坡信如 孤雲雪祐 崑崙準極 圓應寶天 高閑希彦 煥乎有文 寒影信弘 禪和敬林 性英 禪一 唯克 敏性 義賢 懶默 敬訥 尙熙 三祐 仁哲 勝彦 敬律 天敏.”

1608년(선조 41)에 송광사에서 『권수정혜결사문』을 간행할 때 일찍이 공양주로 참여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당시 한흥사(漢興寺)³⁹⁾에 머물렀던 희안은 남한산성에 포위되어 공여(供御)하는 물자가 부족하자 종이와 나물 등을 바쳤다.⁴⁰⁾ 또한 1642년 6월 조정에서 일본으로 가는 사신으로 벽암 각성을 추천할 당시, 승려 두 사람을 보내야 한다면 글도 잘 짓고 글씨도 잘 쓰는 희안이어야 한다고 비변사에서 추천하기도 했다.⁴¹⁾ 이처럼 설봉 희안은 벽암 각성이 주도했던 간행 불사에 일찍부터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당대 문장과 글씨로 유명해 『선원도중결의』의 서사자로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림 혜원(東林慧遠)은 <송광사개창비>에 벽암 문제(門弟) 중 ‘중덕(中德) 혜원(惠遠)’과 동일 인물일 것으로 생각된다. 혜원은 <화엄사비문>과 <법주사비문>에 백곡 처능과 함께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벽암 각성의 절친한 동학이었던 고한 희언(孤閑熙彦, 1561-1647)이 1647년 11월에 속리산 법주사에서 입적하자 그의 부도를 해인사에 세울 당시 희언의 제자인 각원(覺圓)과 더불어 혜원은 개사(開土)로 그 일을 주관하였다.⁴²⁾ 고한 희언의 부도를 해인사에 세우는 일을 혜원이 주도했던 만큼, 비슷한 시기에 『선원도중결의』를 해인사에서 간행하는 데에도 혜원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섭허 인규(攝虛印圭)는 1660년(현종 1)에 『석문가례초』의 간행을 맡기도 했다.⁴³⁾ 그 밖에 집사로 참여한 영민(靈敏)과 신열(信悅)도 <화엄사비문>에서 확

39) 1624년에 벽암 각성이 남한산성을 축성할 당시 두 절을 창건하여 국청(國淸), 한흥(漢興)이라는 사명(寺名)을 지었다고 한다. 『正祖實錄』 정조 3년(1779) 8월 9일條.

40) 『仁祖實錄』 인조 14년(1636) 12월 24일條.

41) 『承政院日記』 인조 20년(1642) 6월 19일條.

42) 『大覺登階集』, 「孤閑大師行狀」(『韓佛全』 8, p.332上), “...分靈骨 墳於八公 塔於伽耶 弟子覺圓 開土惠遠 主焉 越明年春 又建屠家于離岳云.” 백곡 처능은 벽암 각성뿐만 아니라 고한 희언의 행장과 이들의 스승이었던 부후 선수의 비문 등을 기록하였다. 특히 「고한대사행장」에서 벽암 각성과 고한 희언의 인연이 각별했던 기록들을 찾을 수 있다. 1642년 고한 희언이 팔공산에 주석했는데, 벽암 각성이 조정의 명령을 받고 대궐로 가는 도중에 희언을 찾아갔으며 마치 형제와 같았다고 하였다. 얼마 뒤 희언도 해인사로 거처를 옮겼으며, 1646년 가을에 벽암 각성이 청을 받아 속리산으로 가게 되자 이때도 함께 속리산으로 갔다. 이 당시 그들을 찾아와 인사를 올리는 승려와 속인이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한다. 희언은 법주사에서 1647년 11월에 입적하였다. 백곡 처능, 『대각등계집』, 임재완 옮김(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5), pp.300-304 참조.

43) 『釋門家禮抄』, 「釋門家禮抄跋」(『韓佛全』 8, p.288中), “...適會我大師碧巖和尚 已撮其所謂五杉及禪苑規中

인되는 만큼 『선원도중결의』의 간행에는 해인사 주석 승려들뿐만 아니라 벽암 각성의 직계 제자들도 함께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벽암 각성이 해인사에 머물렀던 1642년이 아닌 1648년에 『선원도중결의』가 간행된 배경에 대해서는 그의 행적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벽암 각성은 1643년 경기도 보개산(寶蓋山)에서 크게 법회를 열었다. 마침 관서관찰사로 있던 구봉서(具鳳瑞)가 스님의 학식과 명성을 흠모하여 묘향산으로 초빙했던 것이다. 당시 효종이 왕세자로 있을 때였는데, 벽암 각성이 안릉(평안도 안주)에서 그를 알현하고 화엄의 종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 시기 경기도와 평안도 지역 사찰에 주로 머문 뒤 1646년(인조 24) 가을에 고한 희언과 함께 자신들이 동문수학했던 속리산 법주사로 거처를 옮겼고, 이듬해 1647년 11월에 희언이 입적하였다. 입적 후 희언의 부도를 해인사와 법주사에 건립했는데, 특히 해인사에 부도를 세울 당시 희언의 제자인 각원과 벽암 각성의 제자인 혜원이 주도했다. 절친한 동학이었던 만큼 희언의 부도를 세우는 일에 벽암 각성이 관여를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한 희언의 부도를 세운 일을 마침 무렵에 벽암 각성의 제자들과 해인사 주석 승려들이 협력하여 『선원도중결의』를 해인사에서 간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⁴⁴⁾

採畧者 勒成一卷 名曰釋門家禮 俾晚學後進 細知其喪次進退曲節 儘免乎 孤恩負德之謗 偉矣幸哉 一日命門人弟子 攝虛印圭 一摸一貼而入梓 以廣其傳 於是從而鋟梓 以會末葉 可謂篤矣 門人弟子 梅谷敬一 既已承命 輒伸一言而爲跋 永贊無窮云爾 順治十六年己亥(1659)季春上浣 梅谷敬一謹跋.”; 冊末, “順治十七年 庚子(1660)二月日聞慶襄珊瑚奉雁.” 매곡 경일의 발문에 의하면, 『석문가례초』의 편자를 벽암 각성으로 밝히고 있다.

44) 현재 해인사 산내암자인 국일암(國一菴) 입구에 부휴 선수, 고한 희언, 벽암 각성의 세 부도가 나란히 모셔져 있다.

IV. 원문과 주요 내용⁴⁵⁾

백곡 처능은 스승인 벽암 각성이 “학인(學人)들의 의문과 논쟁으로 인해서 「도중결의」와 「참상선지」 등의 글을 지었으며, 논리를 세운 것이 매우 타당하고 이치를 분석함이 매우 적절하여 학인들의 공부에 많은 자극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⁴⁶⁾ 아래 두 저술의 원문과 주요 내용이다.

1. 「선원도중결의」

1) 원문

禪源圖中決疑

余禪餘困臥于碧巖堂中 諸禪客問曰 禪源圖中 何故不書生起第一本覺之名耶。余
喚而不答。禪客又曰 方今學者 未定此意 若不時答則 何處得決 以定宗旨乎 小垂一言
願決羣疑。余不獲已起曰 古人云蓋各言爾志⁴⁷⁾ 師等請之至再 當剖愚見 師等第問所
當問。

(1) 問曰以一覺之一 爲生起第一科耶。

曰不然。一覺之一 乃生滅平等同一覺之一也⁴⁸⁾ 非生起第一之一也。

(2) 問曰然則 悟則冥符 冥符相順故 無生起第一科耶。

曰此又不然。相順爲一之言 以明頓悟之後 無不覺故 無始覺 無始覺故 無本覺
之義也 非謂不書第一本覺之義也。

(3) 問曰然則 迷時本覺位於藏識中故 不書乎。

曰此又不然。若位於藏識故不書則 何故前述 生起第一重 乃有一切衆生皆有本

45) 『선원도중결의』의 원문 탈초와 번역에 도움을 주신 이종수(순천대), 정희경(동국대), 윤찬호(동국대)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원문의 문단 나누기 및 띄어쓰기, 표점, 괄호 부호 등은 필자 주. 「선원도중결의」의 내용은 추후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46) 앞의 각주 25번 참조. 『대각등계집』, 임재완 옮김(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5), p.295.

47) 『論語』 公治長 25장에 “안연과 계로가 모시고 있었는데, 공자께서 ‘어찌 각각 너희들의 뜻을 말하지 않느냐?’ 라고 하였다[顏淵季路侍 子曰 盍各言爾志]”라고 한 말에서 인용하였다.

48) 宗密(唐) 述, 『禪源諸詮集都序』 卷2(『大正藏』48, pp.409下-410上), “十心既無念 則無別始覺之殊 本來平等同一覺故.”

覺之言耶。

(4) 問曰然則 圖中永無本覺之義耶。

曰前述既有本覺之言則 圖中豈無本覺之義耶。

(5) 問曰然則 以何當於本覺之義耶。

曰覺頓悟之覺是也。

(6) 問曰所據何教典而有此言耶。

曰論云 此識有二義 一覺義 二不覺義。賢首大師於覺義之下 科云始本二覺⁴⁹⁾。圓覺料簡⁵⁰⁾圭山大師 亦於覺義之下 註云本始二覺⁵¹⁾。此等本始二覺之說 非此圖中覺頓悟之義耶。故余云 覺是本覺 頓悟是始覺也。

(7) 問曰若是本覺則 該於染淨 通於凡聖 何故局在於淨位中耶。

曰分染淨也。

(8) 問曰前述不分染淨耶。何故生起第一重曰一切衆生皆有本覺耶。

曰然。前述經分染淨 生起第一則 猶未的分染淨也。何耶。前云十重者 一謂一切衆生皆有本覺真心 二謂未遇善知識法爾不覺也。修斷第一重曰遇善知識悟解云云 迹此觀之則 一切衆生雖有本覺 若不遇善知識開示 不覺自心則爲凡夫也。此迷也染也妄也。若遇善知識開示 始覺自心則爲賢聖也。此悟也淨也真也。此非生起第一本覺 猶未的分染淨耶。然則第一本覺具含染淨凡聖都位故 前述首標爲依真起妄之次。圖中則使染淨兩位 以文並書 以意發現 一時齊觀 故不書第一本覺而偏在於淨位中。此正是論中識有二義之下 賢首大師科云依名卞釋三一明覺 約淨法明心生滅故 文二 一略卞始本二覺之意也⁵²⁾。今以此意相

49) 法藏(唐)述,『大乘起信論疏』卷2(『乾隆藏』141, p.100中),“云何爲二 一者覺義 二者不覺義(二依名辨釋三一明覺○約淨法 明心生滅故文二 一略辨始本二覺 二一本覺 二〇一顯本覺體).”

50) 『佛光大事典』, p.4117中. 料簡“又作料揀了簡量簡量見料見. 指善能分別選擇正法. 蓋此語散見於諸家之章疏中,但用法含義則不同.”;天台宗釋五重玄義之七法.天台宗立名體宗用教等五重,以標章引證生起開合料簡觀心會異等七法,分別加以解釋.(五)料簡,設問答而料簡.作問答體談論問題.

51) 宗密(唐)撰,『圓覺經大疏釋義鈔』卷5(『卍續藏』9, p.558下),“▲疏故論中下二引論總證三重也 二覺者本始也.論云所言覺義者謂心體離念等 乃至不覺心源故 非究竟覺.釋曰上略明二覺已.”

52) 法藏(唐)述,『大乘起信論疏』卷2(『乾隆藏』141, p.100中),“云何爲二 一者覺義 二者不覺義(二依名辨釋三一明覺○約淨法 明心生滅故 文二 一略辨始本二覺 二一本覺 二〇一顯本覺體).”;法藏(唐)撰,『大乘起信論義記』卷2(『大正藏』44, p.256中),“云何爲二 一者覺義 二者不覺義 第三依名別釋中有三.先辨覺 次明不覺 後雙辨同異.初中覺者 約淨法明心生滅故 於中有二.先略辨始本二覺 後又覺心源.下廣明二覺 初中有二.先

對則歷歷可見 非深遠難知也。何也。淨位中頓悟 爲染位中不覺之對 轉展至於第九重究竟覺 則爲染位中念起之對也。此則相翻相對之終也。如第十重 一覺 則但釋第九重究竟覺之義 無別相對之位 與覺頓悟之言 相終始也。然則覺頓悟之言 與一覺之言 乃始終相成因果交徹之謂也。何耶。初悟時 約始本不二 故覺與頓悟合而言之 此因位中一覺也。所謂冥符相順故合之爲一者也⁵³⁾。至於極證 亦約始本不二 故云一覺 此果位中一覺也。所謂證而實無有始覺之異者也⁵⁴⁾。然則一覺之一 乃生滅平等之一也 非生起第一之一也。

(9) 問曰然則 一覺之一 的非生起第一之一也。一覺之覺 是三乘賢聖之本乎。

曰此又不然。若以因果融攝之義 言之則 一覺既是始本不二之義也 亦是三乘之本。若以因果分位 言之則 豈以果位中一覺 爲三乘之本耶。

(10) 問曰然則 始覺爲三乘之本乎。

曰然。何也。始覺乃不覺之對 不覺既是六道之本則 始覺豈非三乘之本乎。

(11) 問曰一覺不是三乘之本 始覺既是三乘之本則 如染位中不覺 不是六道之本 業繫苦相 乃是六道之本也。然則此乃冠履倒置 使人之無疑其可得乎。

曰師之所論始覺之法 與論中所言頓殊。何耶。論云 如凡夫之人 覺知前念⁵⁵⁾ 此信位中始覺也。如二乘人及初發心菩薩 覺於念異⁵⁶⁾ 此賢位中始覺也。如法身大士 覺於念住⁵⁷⁾ 此聖位中始覺也。據此則始覺非賢聖之本乎。師等所解以染位中業繫苦相 爲淨位中始覺之對。此政謂以豎爲正 首尾相換之人 何以垂法於後世也。

(12) 問曰又有一疑敢不陳白 且前述生起修斷染淨二位 各有十重 而圖位則不然。生

本後始。本中亦二 初顯本覺體 二以何故下釋本覺名。”

53) 宗密(唐)述,『禪源諸詮集都序』卷2(『大正藏』48, p.410上),“迷與悟各有十重 順逆相翻 行相甚顯 此之第一對前一二。此十合前第一。餘八皆從後逆次翻破前八。一中悟前第一本覺。翻前第二不覺。前以不覺乖於本覺。眞妄相違故開爲兩重。今以悟即冥符 冥符相順 無別始悟 故合之爲一。”

54) 馬鳴造·眞諦(梁)譯,『大乘起信論』卷1(『大正藏』32, p.576中-下),“又心起者 無有初相可知 而言知初相者 即謂無念。是故一切衆生不名爲覺 以從本來 念念相續 未曾離念 故說無始無明。若得無念者 則知心相生住異滅。以無念等故 而實無有始覺之異 以四相俱時而有 皆無自立 本來平等同一覺故。”

55) 앞의 책, “如凡夫人 覺知前念起惡故 能止後念 令其不起 雖復名覺 即是不覺故。”

56) 앞의 책, “如二乘觀智 初發意菩薩等 覺於念異 念無異相 以捨僞分別執著相故 名相似覺。”

57) 앞의 책, “如法身菩薩等 覺於念住 念無住相 以離分別僞念相故 名隨分覺。”

起之數 只有九重 自第二至於第十重 此何耶。自古算法從一至十 如不滿十則自一計之至於九而止也。乃則不然 突然書曰二不覺云云 不可無一而有十。此一在於何處耶。且私意既無本覺之一 只有一覺之一 與論云一覺義 二不覺義之言 語意相符 字亦相對。何以故 以藏識爲中 以一覺之一爲左 以不覺之二爲右 使讀者先讀一覺後 讀不覺則 易見易解也。此意何如。

曰甚矣此問也 不可不卞也。前不云本覺具含染淨凡聖都位故 前述首標第一爲依眞起妄之次。圖位則別分染淨故 不書第一本覺乎。大槩比等 猶未詳圖意也。蓋圭山大士畫而爲圖者 使迷悟凡聖之位 頓書並顯故 畫之爲圖云⁵⁸⁾ 此則既曰並顯 何必相證乎。蓋藏識居於染淨凡聖之中 與眞如門爲對則 讀時先讀眞如而後讀藏識。至於染位中 自不覺至於受報則 乃與論所謂 前生滅門及此不覺是生起次第之說相符也。至於淨位中 自覺頓悟爲首至於一覺則 亦與論所謂 前眞如門 但明心體離念 此門覺義 但顯染中淨相 及返流還源 並非起末倫次之說⁵⁹⁾符契 乃與並書並顯之義賂合。何必先讀淨位中一覺然後 讀染位中不覺耶。就此觀之 染淨相對 並立之義 煥若明鏡 條如綸貫也。說者不本其意 只看一二相對之文 又泥一二次第之說 煩與問難也。

(13) 問曰覺是三乘賢聖之本之覺 但言始覺耶。

曰不然 覺頓悟既是三乘之本則 豈非具本始二覺之覺耶。但約迷悟分位處云 始覺是三乘之本 乃以不覺爲六道之本 爲對故也。

於是諸禪客禮謝曰 今日乃問圖中要旨矣 辭退命侍者書之 名曰圖中決疑。

禪源圖中決疑 終

58) 宗密(唐)述,『禪源諸詮集都序』卷2(『大正藏』48, p.410中),“然雖順逆相對前後相照法義昭彰 猶恐文不頓書意不並顯 首尾相隔不得齊觀 今更畫之爲圖。令凡聖本末大藏經宗一時現於心鏡 此圖頭在中心云眾生心三字是也。從此三字讀之 分向兩畔 朱畫表淨妙之法 墨畫表垢染之法 一一尋血脈詳之 朱爲此○號 記淨法十重之次。墨爲此●號 記染法十重之次 此號是本論之文 此點是義說論文爾。”

59) 法藏(唐)述,『大乘起信論疏』卷1(『乾隆藏』141, p.86中),“終教分齊也以始教相宗不知佛說如來藏以爲阿賴耶故非彼分三依後門明二義 一者覺義(前眞如門但明心體不變 此門覺義 但顯染中淨相及反流還源 並非起末倫次) 二者不覺義(前生滅門及此不覺即是生起次也)。”

2) 주요 내용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선원도중결의’는 규봉 종말의 『도서』에 수록되어 있는 도식(圖式) 중 그 의문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다. 주로 『대승기신론』에 근거해 본래 청정한 중생의 마음(衆生心)이 미혹(迷, 染)과 깨달음(悟, 淨)으로 가는 과정을 각각 10단계(十重)로 설명하는 부분이다.⁶⁰⁾ 이 글은 벽암 각성이 벽암당(碧巖堂)에서 참선하던 여가에 여러 선객(禪客)들이 찾아와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내가 벽암당에서 참선하던 여가에 곤하게 누워있는데, 여러 선객들이 “『선원제전집도서』에 수록된 도식에서 생기(生起)하는 제1의 본각(本覺)이 어떤 이유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내가 웃으며 답하지 않자 선객들이 “지금 배우는 자들이 그 뜻을 정하지 못하는데, 만일 지금 답해 주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 결정을 해서 중지(宗旨)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내려주시어 여러 의심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거듭 말하였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 “옛 사람[공자]이 ‘어찌 그대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가’라고 했듯이 스님들이 거듭 청하면 내가 어리석은 견해를 가려내어 줄 것이니 스님들은 차례대로 물으십시오”라고 말했다.

선객들은 염위십중(染位十重)에서 첫 번째 단계인 제1 본각(本覺)이 왜 도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를 묻고 있다. 벽암 각성은 차례대로 다시 질문하도록 하여 13가지 질문과 답변이 이어진다.

13가지 문답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문의 (1)에서 (8)까지는 주로 『도서』의 본문에 기술되어 있는 염위의 10가지 단계가 왜 도식에서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제1 본각이 기술되어 있지 않고 제2 불각으로 시작하는

60) 미오십중(迷悟十重)의 도식을 간략히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十重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染位[迷]	(本覺)	不覺	念起	見起	境現	執法	執我	貪瞋癡	造業	受報
淨位[悟]	覺頓悟	發菩提心	學修五行	三心開發	我空	法空	色自在	心自在	離念(究竟覺)	一覺(成佛)

지에 대한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8)에서 벽암 각성이 그 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9)에서 (11)까지는 정위십중(淨位十重)의 ‘일각(一覺)이 삼승현성의 근본이 아니라 각돈오의 시각(始覺: 돈오)이 삼승현성의 근본이다. 이는 시각이 육도(六道)의 근본이 되는 불각(不覺)과 대응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12)와 (13)은 선객들이 앞의 두 가지 내용을 다시 질문함으로써 벽암 각성의 답변을 한 번 더 명료히 듣고 있다. 벽암 각성은 ‘본각(本覺)은 염(染)과 정(淨) 혹은 범(凡)과 성(聖)에 모두 속해 있기 때문에 앞서 본문에서는 진을 의지해 망을 일으키는 단계[染位十重]에서 그 첫 번째로 본각을 서술한 반면, 도식에서는 염과 정으로 따로 분리해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에 제1 본각을 쓰지 않았다’라고 재차 설명하면서 규봉 종말이 도식을 그려 설명한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꾸짖고 있다.

질문을 마친 선객들은 이러한 문답이 바로 도식의 요지(要旨)라며, 이를 시자에게 적도록 하여 ‘도중결의’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2. 「참상선지설」

1) 원문

參詳禪旨說

- (가) 崇禎九年丙子至月初吉 乃先師忌辰也。與諸兄等 會祭于華嚴寺碧巖堂中。祭罷相話語及節要。日兄曰放下教義 參商禪旨之言 方今學者 其說不一 弟試爲我說破。余曰大尊兄 既有請焉 余欲無言其可得乎。
- (나) 華嚴經統要云 世尊未離兜率 已降王宮 未出母胎 度人已畢。先德釋云 未離云云 處無碍 卽所謂無邊剎境 自他不隔於毫端者也。未出云云 時無碍 卽所謂十世古今 始終不離於當念者也⁶¹⁾。禪門諸祖 多舉此話 以彰宗旨 卽禪話一千一百

61) 李通玄(唐)撰, 『新華嚴經論』卷1(『大正藏』36, p.721上), “無邊剎境 自他不隔於毫端 十世古今 始終不移於當念.”; 慧誥(高麗)集·覺雲(高麗)撰, 『禪門拈頌 拈頌說話會本』卷1(『韓佛全』5, pp.5下-6上), “此話 華嚴

二十五則中 此是第一公案也⁶²⁾。

(㉑) 悟雖教說 意乃禪旨 此卽是雖有引教 非純教之意也。不知此意者 若以時處無碍之言論之 此卽是但將教義深淺 度量禪旨之意也。若大量人 但舉此話 十二時中 着意參究則 此卽是放下教義 參商禪旨之意也。如是加功 疑來疑去疑到百不會 則直透已降已畢之消息 此卽是必有所得之意也⁶³⁾。

(㉒) 故崑山頌此話云 未離兜率境 已降父王宮 雖度衆生畢 猶居母腹中 良由非妙用 亦不是神通 勿自立規矩 承言須會宗⁶⁴⁾。又大慧頌云 利刃有蜜不須舐 蠱毒之家水莫嘗 不舐不嘗俱不犯 端然衣錦自還鄉⁶⁵⁾云云。此等頌意 無乃教人放下教義 參商禪旨耶。

(㉓) 今諸方禪德 提接學者時 皆云放下教義者 放下如實言教之言也。參商禪旨者 參箇話頭之言也。以此爲節要大旨 孤負牧牛子深恩故。今因大學兄之請 略引拈頌語 例以決此義 兼示堂中諸友 後來具眼者 必有定論 僭越之斥 知不可道。語了。

(㉔) 尊兄曰 多言雖本宗病 今因弟言 徹見牧牛子深意。命侍子書之。

參詳禪旨說 終

經離世間品十種微細趣散文 述而爲詮[話]也……未離云云 處無礙 未出云云 時無礙 則無邊利境 自他不隔於毫端 十世古今 始終不離於當念也。”

62) 慧謙(高麗) 集·覺雲(高麗) 撰, 『禪門拈頌 拈頌說話會本』卷1(『韓佛全』5, p.4下), 兜率來儀 선문 제1칙. “世尊未離兜率 已降王宮 未出母胎 度人已畢.”

63) 知訥(高麗) 記,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韓佛全』4, p.760上下), “密禪師云 佛教爲萬代依憑 理須委示 師訓在即時度脫 意使玄通 故知禪教爲門 事體各別. 何者 佛教委示者 緣起法門 事事無碍 巧辯多端 故於全收門親近 而全揀門且疎 師訓玄通者 對機下語 句能刻意 意能刻句 意句交馳 不留其迹 故於全揀門親近 而全收門且疎 全揀門親近者 在即時度脫 故全收門親近者 爲萬代依憑 故雖兩家皆有二門 然各有所長 不可相非. 既在即時度脫 撮略爲門 故雖有引教 皆爲明宗 非純教也. 不知此意者 但將教義深淺 度量禪旨 徒與誇譎 所失多矣. 若大量人 放下教義 但將自心現前一念 參詳禪旨 則必有所得. 如有信士 傾鑑此言.”

64) 慧謙(高麗) 集·覺雲(高麗) 撰, 『禪門拈頌 拈頌說話會本』卷1(『韓佛全』5, pp.4-5上), “崑山元頌 未離兜率境 已降父王宮 雖度衆生畢 猶居母腹中 良由非妙用 亦不是神通 勿自立規矩 承言須會宗.”

65) 앞의 책, p.5上, “大慧杲頌 利刃有蜜不須舐 蠱毒之家水莫嘗 不舐不嘗俱不犯 端然衣錦自還鄉.”; 『大慧普覺禪師語錄』卷10(『大正藏』47, p.850下), “世尊未離兜率已降王宮 未出母胎度人已畢 頌云 利刃有蜜不須舐 蠱毒之家水莫嘗 不舐不嘗俱不犯 端然衣錦自還鄉.”

2) 주요 내용

「참상선지설」의 서두에는 이 글을 저술하게 된 동기뿐만 아니라 그 시기와 장소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 승정 9년 병자년(1636) 음력 11월 1일은 돌아가신 스승님[부휴 선수]의 기일이다. 여러 사형들과 화엄사 벽암당에 모여 제(祭)를 올렸다. 제를 마치고 서로 대화를 하다 『절요』에까지 이르렀다. 일형(日兄)이 “지금 배우는 자들이 ‘방하교의 참상선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제각기 다르니, 아우님이 나를 위해 내용을 살펴보고 말해 줄 수 있겠소?”라고 말하였다. 나는 “존경하는 사형께서 청하셨는데, 제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답하였다.

이 글은 1636년 11월 1일인 부휴 선수의 기일(忌日)에 벽암 각성과 그의 사형들이 화엄사 벽암당에 모여 제를 지낸 뒤에 나는 얘기들을 정리한 것이다. 제를 마친 뒤 화두에 대해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절요』에 나오는 내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벽암 각성의 사형인 일형(日兄)이 ‘방하교의(放下教義) 참상선지(參商禪旨)’에 대한 설명이 학인들 사이에 분분하니 자신을 위해 설파해 주기를 벽암 각성에게 청하였다.⁶⁶⁾ 이에 벽암 각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화엄경통요』에 “세존께서 도솔천을 떠나시기 전에 이미 왕궁에 태어나셨으며,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시기 전에 이미 사람들을 다 제도하셨다”고 한다. 옛날 대덕 스님께서 이를 “세존께서 도솔천을 떠나시기 전에...’는 장소에 걸림없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이른바 ‘끝없는 찰라 경계에 자신과 타인 사이에 털끝만한 간격도 없다’는 말이다.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기 전에...’는 시간에 걸림없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이른바 ‘십세고금에 시작과 끝이 바로 지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다”라고 풀이하셨다.⁶⁷⁾ 선문의 많은 조사들이 대부분 이 화두에 의거해서 [선문의]

66) 벽암 각성과 같은 시기에 활동한 편양 언기도 「禪教源流尋鈞說」(『鞭羊堂集』卷2, 『韓佛全』8, pp.256下-257下)을 지었던 만큼 당시 禪과 教, 禪旨 등을 밝히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7) 『화엄경통요』가 어떤 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제1 고칙[世尊未離兜率 已降王宮 未出母胎度

종지(宗旨)를 밝혔는데, 1,125칙의 선의 화두 중 이것이 바로 제1 공안이다.

(㉔) 깨달음을 비록 교(敎)로 설명하지만 그 뜻은 선지(禪旨)이다. 이것이 바로 [지눌 스님이 말씀한] ‘비록 교를 인용하고 있지만 순수한 교(敎)만 아니다’는 뜻이다. 이러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걸림이 없다는 말로써 논한다면 이것이 바로 ‘교의의 깊고 얕은 것만을 가지고 선지를 헤아린다’라는 뜻이다. 만일 근기가 높은 사람이 이 화두만 종일 들고서 그 의미를 천착해 참구한다면 이것이 바로 ‘교의를 내려놓고 선지를 참상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노력을 더해서 의심이 오고 가고 하여 마침내 의심이 아무 것도 모르는 데까지 이르면, 이강이 필의 소식⁶⁸⁾을 곧바로 통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반드시 얻는 것이 있다’는 뜻이다.

(㉕) 그러므로 곤산이 이 화두에 대한 계송으로 “도솔천을 떠나시기도 전에 이미 부왕의 궁궐에 내려오셨다네. 비록 중생을 다 제도하셨지만 아직 모친의 뱃속에 계신다네. 참으로 오묘한 작용도 아니요神通한 능력도 아니라네. 스스로 법도를 세우려 하지 말고 말 속에 종지를 알아야 하네”라고 말한 것이다. 또 대해 종고도 계송으로 “날카로운 칼날에 묻은 꿀을 핥지 말고 독을 만드는 집안의 물을 맛보지 말라. 핥지 않고 맛보지 않아 무엇도 어기지 않으면 비단옷 단정히 입고 저절로 고향에 돌아가리라...”라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계송들의 의미가 바로 사람들에게 ‘방하교의 참상선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㉖) 지금 제방의 선덕(禪德)들이 학인들을 제접할 때 “‘방하교의’는 여실언교를 내려놓으라는 말이며, ‘참상선지’는 낱낱의 화두를 참구하라는 말이다”라고 모두들 말한다. 이것을 『절요』의 가장 큰 요지[大旨]로 삼는 것은 목우자[지눌] 스님의 깊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학식이 높은 사형들의 요청으로 『선문염송』의 글을 간략히 인용하여 본보기로 삼아 이 뜻을 판별하여 벽암당에 있는 여러 도반들에게도 보이는 것이다. 이 다음에 올 안목을 갖춘 자들은 눈을 정함에 있어서 주체넘는 것은 물리치고 제대로 알아서 질문을 피해서는 안 된다. 이만 말을 마친다.

人已畢]에 대해 『염송설화』에서 주석한 내용을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다. 각주 61번 참조.

68) ‘세존께서 아직 도솔천을 떠나시기 전에 이미 왕궁에 태어나셨으며,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시기 전에 이미 사람들을 다 제도하셨다’는 제1 공안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이다.

(㉸) 존경하는 사형이 “많은 말을 우리 본종에서는 병통으로 여기지만, 지금 아우의 말로 인해서 목우자[지눌] 스님의 깊은 뜻이 철저히 드러났으니, 시자에게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해라”라고 말하였다.

벽암 각성은 『절요』에서 기술하고 있는 ‘방하교의 참상선지’의 뜻(㉸)을 『선문염송』에 나오는 첫 번째 화두(㉸)를 인용하여 곤산 혜원과 대혜 종고 등의 계승(㉸)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당시 제방에서 학인들을 가르치던 선사들이 ‘방하교의 참상선지’의 뜻을 잘못 설명하고 이를 『절요』의 요지를 삼는 것은 지눌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지눌의 뜻을 밝힌 벽암 각성의 설명을 들은 후 그의 사형이 글로 기록해 두도록 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선원도중결의」와 「참상선지설」의 원문과 주요 내용에서 살펴본 것같이, 두 저술은 당시 선사들이나 제방의 학인들을 가르치는 사형들이 『도서』와 『절요』의 내용 중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벽암 각성에게 질문함으로써 그의 답변을 생생하게 기록한 글이다. 그 문답은 주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 결국 선의 종지[禪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선사들이나 연배가 높은 사형들이 찾아와 벽암 각성에서 질문을 할 만큼 그는 선사(禪師)로서 뿐만 아니라 훌륭한 강사(講師)로서의 모습도 보인다. 이러한 배경은 두 저술에 대해 발문을 쓴 신익성의 글에서도 잘 묘사되어 있다.

(…) 불문(佛門)에 종사(宗師)로 칭하는 자들을 두루 보건대 결택(決擇)과 견해(見解)가 의론할 만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어떤 이는 구두(口讀)에만 얽매이고, 어떤 이는 문의(文義)를 잘못 알기도 하다. 이와 같은 자는 스스로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남을 가르치는 일도 많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벽암의 「도중결의」는 부득이해서 한 말이다. 앞서 현인들이 이미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 뒷사람들이 잘못 알고 의심을 일으킨 것이다. 따라서 분변하지 않으면 환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말한 것이지, 변론하기를 좋아해서 일부러 말한 것이 아니다. 「참상선지설」은 저들의 견해가 더욱 잘못되었는데, 분변하기를 더욱 명확하게 하여 겹겹의

관문을 깨뜨려 깨달음의 길을 환하게 넓혀놓았다. [벽암의] 학식이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쾌활한 경지에 이르렀다 할 만하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배를 움직이는 것은 사공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였으니, 벽암과 같은 이야말로 그 말에 해당하지 않겠는가. 내가 이제 늙었으니 언제 다시 산수를 유람하며 벽암과 같은 이와 더불어 논할 수 있으리오. 아! 임오년 (1642) 중추(8월) 동회부수가 백운루에서 기록하다.⁶⁹⁾

신익성은 당시 종사로 불리는 승려들 중에는 입으로만 책을 읽거나 글의 뜻을 잘못 이해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그릇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벽암 각성은 이러한 잘못을 분별해서 깨우쳐 줄만큼 학식이나 깨달음의 경지가 높았다고 평하고 있다. 신익성은 젊은 시절부터 불교에 관심이 있어 많은 승려들과 교분이 깊었다. 그는 평소 친분이 있으면서 당대 명성이 높았던 네 명의 승려를 꼽고 그들을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나는 평소 산인(山人)이나 납자(衲子)와 더불어 노니는 것을 좋아하여 저들 중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이는 나를 찾아왔다. 세상에서 이른바 노숙(老宿) 명사(名師)라 일컬어지는 의형(義瑩)·법견(法堅)·성정(性淨)·응상(應祥)·해안(海眼)·각성(覺性)·언기(彦機)가 모두 나와 평소 친분이 있는 이들이다. 입적한 이는 빼고 살아있는 이로 말하자면 응상의 덕기(德器), 해안의 재식(才識), 각성의 경발(警發), 언기의 아조(雅操)가 모두 그 명성에 어긋나지 않았다.⁷⁰⁾

69) 『書圖中決疑後』,“(余性喜山水 足跡殆遍名區 又喜與禪宿譚因果. 山人之稱號知識 無論南北 皆來參證. 至有平生不識面目 而千里緘辭 扣質勤款 實不知其空疏味味 此何翹逐臭已也.) 第觀渠家門中稱宗師者 決擇見辭 亦不能無可議 或泥於口讀 或錯認文義. 若是者不宣自誤 誤人多矣 可不懼哉. 碧巖之圖中決疑 卽不得已而言也. 前賢說之已詳 後人錯認起疑. 不辨則不明 非故爲好辨也. 參商禪旨之說 彼見尤繆 辨之尤的 打破重關 覺路廓然. 學而至此 可謂快活境界. 古人曰 行船要在把梢人 如碧巖者 可以當之否. 吾今老矣 安得再游山水間 與如碧巖者 上下其論也. 噫. 壬午中秋東淮府叟書于白雲樓中.” 이 발문 중 ‘上下其論也’가 『속고(續稿)』 권14 『書碧巖長老圖中決疑參商禪旨說後』에는 ‘談因果如昔日也(옛날처럼 인과를 이야기할 수 있으리오)’로 기록되어 있다. 김은정, 『樂全堂 申翊聖의 문학 연구』, 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대학원, 2005), pp.34-35에서 수정 및 재인용.

70) 『낙전당집』 권5, 『贈守能上人序』. 김은정, 앞의 논문, p.32에서 재인용.

벽암 각성을 ‘경책하고 깨우쳐 주는데’ 뛰어났다고 당대에 평가했듯이, 「선원도중결의」와 「참상선지설」의 두 저술을 통해 벽암 각성에 대해 선사로서 뿐만 아니라 교학자로서의 평가도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조선전기 선교양종 체제에 따른 승과(僧科)는 승직을 부여하는 동시에 강학(講學)의 기반이 되었다. 이후 선교양종 체제마저 폐지되고 도승(度僧)과 승직에 대한 국가의 규정이 없어지게 되었다. 대신 불교계 교단 내에서 법맥을 통한 사승관계의 정립이나 강학체계의 마련이 현실적으로 필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6, 17세기 전반에 사집(四集)-사교(四教)-대교(大教)라는 이력(履歷)의 강학체계가 마련되었고, 여기에 해당하는 불서들이 집중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했다. 특히 사집에 해당하는 『도서』, 『절요』, 『서장(書狀)』, 『선요(禪要)』는 강학의 대표적인 불서로 자리매김 하였다.⁷¹⁾

금번에 새로 발견한 『선원도중결의』에 수록된 「선원도중결의」와 「참상선지설」은 『도서』에 나오는 도식 가운데 의문이 되는 부분과 『절요』에 나오는 ‘방하교의 참상선지’의 의미를 대선사인 벽암 각성에게 묻고 그 요지[禪旨]를 기록해 둔 문헌이다. 특히 질문하는 이들이 선승들 혹은 벽암의 사형인 점으로 보아 당시 학인들을 지도하는 입장의 승려들이었을 것이다. 1636년에서 1640년 사이에 화엄사에서 편찬되었던 두 편의 짧은 글을 1648년 해인사에서 판각했던 것은 당시 『도서』와 『절요』를 이해하고 강학을 위해서는 필요했던 교재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효시(嚆矢)가 되어 상봉 정원(霜峯淨源, 1627-1709)을 시작으로 설암

71) 1630년대 무렵 청허계의 적전인 편양 언기는 삭녕 용복사(龍腹寺)에서, 반면 부휴계의 적전인 벽암 각성은 지리산 능인암(쌍계사), 순천 송광사, 태인 용장사 등에서 이력 불서를 체계적으로 간행하였다.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서울: 신구문화사, 2010); 손성필·전효진, 앞의 논문 등 참조.

추봉(雪岩秋鵬, 1651-1706), 회암 정혜(晦菴定慧, 1685-1741), 연담 유일(蓮潭有一, 1720-1799)까지 18세기 들어 『도서』와 『절요』에 대한 이들의 사기(私記)가 편찬뿐만 아니라 간행까지 이르게 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벽암 각성의 『선원도중결의』는 18세기 강학사기⁷²⁾의 효시로 그 의미가 있으며, 그의 교학과 사상에 대해서도 새롭게 평가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72) 이종수, 「조선후기 불교 講學私記의 종류와 定本化의 필요성」, 『大學院 研究論集』 제10집(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2017), pp.291-343 참조.

참고문헌

1. 원전류

- 『禪源圖中決疑』(부산 범어사 정보박물관 소장)

2. 단행본류

- 智冠 編, 『韓國高僧碑文總集 朝鮮朝·近現代』,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0.
-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 제66집,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1.
- 『한국의 사찰문화재: 부산·울산·경남Ⅱ』, 서울: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9.
-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서울: 신구문화사, 2010.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편,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 서울: 동국대출판부, 1976.
- 문명대 외, 『(한국미술사연구소 학술총서 34) 벽암 각성과 불교미술문화재 조성』, 서울: (사)한국미술사연구소·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8.
- 백곡 처능, 『대각등계집』, 임재완 옮김,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5.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 『芝峯集』,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4.
- 이태호, 「동회 신익성: 인조 시절의 사생론과 실경화 <백운루도>」, 『옛 화가들은 우리 땅을 어떻게 그렸나』, 서울: 마로니에북스, 2015.

3. 논문류

- 김용태, 「유교사회의 불교의례-17세기 불교 상례집의 五服制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 7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 김은정, 「樂全堂 申翊聖의 문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2005.
- 서수경, 「『禪源諸詮集都序』의 간행과 유통판본 고찰-中國과 韓國 유통본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59, 한국불교학회, 2011.
- 손성필, 「조선중후기 고승 傳記類 자료의 성격: 碧巖 覺性の 碑銘과 行狀을 중심으로」, 『佛智光照: 청계정인스님 정년기념논총』, 논총간행위원회, 2017.
- 손성필, 「17세기 浮休系 僧徒의 碑 건립과 門派 정체성의 형성」, 『조선시대사학보』 83,

조선시대사학회, 2017.

- 손성필·전효진, 「16·17세기 ‘사집(四集)’ 불서의 판본 계통과 불교계 재편」, 『한국사상사학』 제58집, 한국사상사학회, 2018.
- 이종수, 「조선후기 불교 講學私記의 종류와 定本化의 필요성」, 『大學院 研究論集』 제10집,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2017.
- 정수미, 「釜山 寺刹 文獻의 現況과 保存(梵魚寺 現藏 典籍·木板을 중심으로)」, 『文化傳統論集』 제11집,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 최연식, 「완주 송광사의 창건 배경 및 조선후기 불교 문파와의 관계」, 『보조사상』 제47집, 보조사상연구원, 2017.

On the Background of Publication and the Original Texts of The Newly Found Byeokam Gakseong's *Seonwon dojung gyeorui*

Seo, Sujung
Researcher at the Academy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The *Seonwon dojung gyeorui* 禪源圖中決疑, known to have been written by Byeokam Gakseong (1575-1660) in the mid-Joseon period, has not been discovered in the form of a printed edition. Recently, however, I have found out that a xylographic edition of this book is owned by Seongbo Museum in Beomeosa Temple in Busan.

The newly found book is a combined issue of the *Seonwon dojung gyeorui* 禪源圖中決疑 and the *Chamsang seonji seol* 參詳禪旨說, another text authored by Byeokam Gakseong, both of which were published at Haeinsa Temple on Mount Gaya in Hapcheon in 1648. The former text is composed of 13 questions and answers, in which Byeokam Gakseong replies to the questions by itinerant Seon monks on the doubtful points appearing in the "diagram on the ten stages of delusion and enlightenment" from the *Chanyuan zhujian ji duxu* 禪源諸詮集都序 (hereafter *Preface*). The latter text is based on the discourse delivered by Byeokam Gakseong at Hwaeomsa Temple in 1636. This text comprises an explanation for the gist of Bojo Jinul's Seon on the "Discarding [Attachment to] the Meaning of the Doctrine and Examining the Seon Tenets in Detail" 放下教義 參商禪旨 from the *Beopjip byeorhaengnok jeoryo byeongip sagi*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hereafter *Excerpts*).

These two texts were in fact dictated to an attendant whose name was Seolbong Huian, a disciple of Byeokam Gakseong. And the postscript to the book, Seo dojung

gyeorui hu 書圖中決疑後, was written in calligraphy by Donghoe Sin Ikseong (1588-1644), a son-in-law of King Seonjo, at Baegunru on Mount Yongmun in Gyeonggi Province in 1642.

The newly found Byeokam Gakseong's *Seonwon dojung gyeorui* has the significant meaning as the initiative in the personal notes 私記 on the *Preface* and the *Excerpts*, both of which were annotated by monks of the late Joseon period in the 18th century. Therefore the further substantial studies are expected to proceed on the teaching and thought of Byeokam Gakseong.

Keywords

Seonwon dojung gyeorui, *Chamsang seonji seol*, *Seo dojung gyeorui hu*, Byeokam Gakseong, Sin Ikseong, Seolbong Huian

2018년 05월 13일 투고
2018년 06월 15일 심사완료
2018년 06월 26일 게재확정